

제19편 - 제3신앙촌시대<제6부>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70회)

제19편
제3신앙촌 시대(제6부)
一. 呼來逐出眞人用法(호래축출진인용법)
: 말중은
1) 부도가 난 신앙촌 그룹
2) 강제로 해산시키시는 영모님
3) 영모님은 영적 아들 구세주를 위해 희생하였다

一. 呼來逐出眞人用法(호래축출진인용법): 오라고 불러 놓고 축출하시는 진인의 용법

1) 부도가 난 신앙촌 그룹

6000년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완성의 역사가 셋째 울타리 3신앙촌에서 완성된다고 하셨으나 3신앙촌에 와서 지금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변장하기는커녕 공작들은 부도가 난다고 야단이고 영모님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전국의 전도관을 다 팔아 처분하기 시작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다들 영모님이 종교 활동을 중단하시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였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영모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시는 하늘의 존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전도관을 팔아서라도 부도의 위기를 면할 수만 있다면 다행이라고 좋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위에서도 잠깐 설명을 하였던 것처럼 있는 힘을 다하여 제품들을 팔아 임금을 시켰다. 구관부를 새로 만들어 영업 활동을 하게 된 것도 부도를 막기 위함이라고 하여 열심히 하였다.

그런데 다들 '설마 그와 같은 일이야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다. 1981년 1월에 1차로 약 300억 정도의 부도가 났다. 그리고 동년 7월에 2차

로 300억 정도의 부도가 난 것이다. 합계가 약 600억 정도가 부도가 난 것이다. 서울 구관부에 부도가 났으니 더 이상 어음을 발행하지 말고 영업활동을 중단하라는 급한 연락이 왔다. 믿어지지 않았었다. 영모님이 부도의 위기를 계속 말씀을 하실 때에는 '설마 이 역사가 어떤 역사인데 부도를 내실 리가 있겠는가?'라고들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정말로 부도가 났다고 한다. 영업부에서는 부도가 난 순간부터는 어음을 발행하는 영업행위를 일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기로 몰릴 수도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일체 영업활동을 정지시켰다. 전국적으로 거래를 할 수 많은 거래처가 생각이 났다. 큰일났다고 생각되었다. 그 수많은 거래처들은 신앙촌만은 절대로 부도 같은 것은 안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여 믿고 5개월에서 1년까지의 어음을 의심없이 받아왔던 것이다. 이제부터 거래처들이 물려올 것이다.

우선 대우빌딩 23층에 자리잡은 신앙촌 구관부를 폐쇄하였다. 그리고 서울 답십리에 위치한 '김일체육관' 2층을 신앙촌 부도 대책 사무실로 개설하였다. 신앙촌 부도 소식을 들은 수많은 거래처들이 이곳으로 물려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부도 대책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는지 알 수가 없었다. 가장신앙촌으로부터도 아무 지시가 없었다. 물려드는 거래처 사람들은 하나같이 분노로 가득 찬 얼굴 모습들이다. 분노에 찬 거래처 사람들이 물려든 수가 수십 명이니 이삼일이 지나니까 200여 명으로 복적대기 시작한다. 고함을 지르고 책상을 뒤집어



엎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다. 이들은 돌아가지 않고 진을 치고 앉아서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아우성이다. 영업부 직원들도 그들과 더불어 밤을 지새웠다. 맥살도 잡혔다. 언어 맞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다. 가장신앙촌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야 하는데 일체 지침이 하달되는 것이 없다. 이리다가 1주일이 지났다. 드디어 가장신앙촌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 그 지침 내용은 이러했다.
- 1] 꼭 다 책임지고 갚아준다.
 - 2] 단 갚을 만한 여력을 만들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
 - 3] 2년 내지 3년 안에 다 갚겠다. 그러나 부도 난 어음을 은행에 돌리지 말고 삼광물산 발행 약속 어음으로 2년-3년으로 받아가라.
 - 4] 현금을 원하는 사람은 30%의 현금

과 어음을 바꿔라, 등이었다. 부도 대책 지침을 받은 영업부 직원들은 기가 막혔지만 그 지침을 따라 협상하기 시작하였다. 거래처 사람들은 처음 그 말을 듣는 순간 욕설과 주먹이 막 나오고 난리를 쳤다. 그러기를 며칠 동안 실감을 한 끝에 거래처 사람들은 할 수가 없다는 듯이 이번에는 또 부도를 내는 것이 아닐테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할 수 없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삼광물산 어음으로 끊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지독한 사람들은 며칠 동안 사이에 소주를 타서 마시면서 난동을 부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여서인지 어음을 바꿔 받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2-3년 어음을 받아간 사람들이 찾아와서 현금 30%를 받고 다시 교환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1억이면 3000만원을 받고 해결을 보는 것이다. 상당수가 이와 같이 현금으로 교환을 해갔다. 만일에 이렇게 전 부도액을 해결을 보게 된다면 600억의 부도액의 30%면 180억으로 600억의 부도난 부채를 다 청산을 할 수가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부도를 내서 420억을 버는 것이 된다. 당시의 많은 기업들이 이와 같은 수법들을 많이 썼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영모님께서 정말 어찌할 길이 없어서 부도를 내신 것일까?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정확하게 부도를 내신 것은 영모님이 돈에 욕심이 나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 앞에서 고리대금업을 하시는 영모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도 잠깐 설명을 하였지만 영모님의 개인 명의로 된 재산은 한푼도 없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상속된 것도 없다. 다만 셋째인 박윤명 사장에게 대표권을 준 것 외에는 어느 자식에게도 공식적으로 재산을 분배할 수 있도록 회사를 나누어 주던가 하는 것 같은 일은 하지하지 않았다. 더욱이 박윤명 사장 외에는 신앙촌 관리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를 못하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영모님의 자녀들이 박윤명이 혼자서 욕심 사납게 해먹는다고 하면서 법적 소송도 여러 번 하였다.

그렇다면 영모님은 무엇 때문에 무리를 하시면서까지 재산을 축적하시려고 애를 쓰신 것일까? 당신이 없는 동안에 신앙촌 그룹이 대한민국에서 잘 성장 발전을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을 받아간 사람들이 찾아와서 현금 30%를 받고 다시 교환해가는 사람들이 많이

영모님은 신앙촌 그룹을 잘 성장 발전을 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전 신앙촌 그룹을 강제로 해산시키기 시작을 하시는 것이다. 영모님은 분명 무리를 하시면서까지 재산을 축적하신 것은 어떤 큰 뜻이 계셔서 하신 것이라는 것에 확신이 가는 내용인 것이다.

2) 강제로 해산시키는 영모님

6000년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셋째 울타리인 3신앙촌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셨으나 웬일인지 3신앙촌 후반부터는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변장하지를 않고 공작은 부도가 난다고 영모님은 계속 몰아부치시니 부도를 막는다고 전 교인들이 있는 힘을 다하여 임금을 시켰지만 결국은 부도가 나고 말았다. 그리고 영모님이 피땀으로 이루어 놓으신 전도관마저 팔 수 있는 것은 다 팔아치우시더니 급기야는 신앙촌 사람들과 전국 전도관의 관장들에게 다들 나가라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 것이다. 강제로 쫓아내시는 것이다. 이 길이 유일한 완성의 역사라고 생명을 걸고 파셨던 무수한 사람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를 것 같았다. 실망하고 흥분한 많은 교인들은 영모님은 실패자라고 결론을 짓게 되었다. 중고등학교 적부터 영모님에게만 영생의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세상줄을 완전히 끊고 따르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영모님은 실패자라고 생각을 하여 우리의 청춘을 보살펴 달라고 아우성 친 사람들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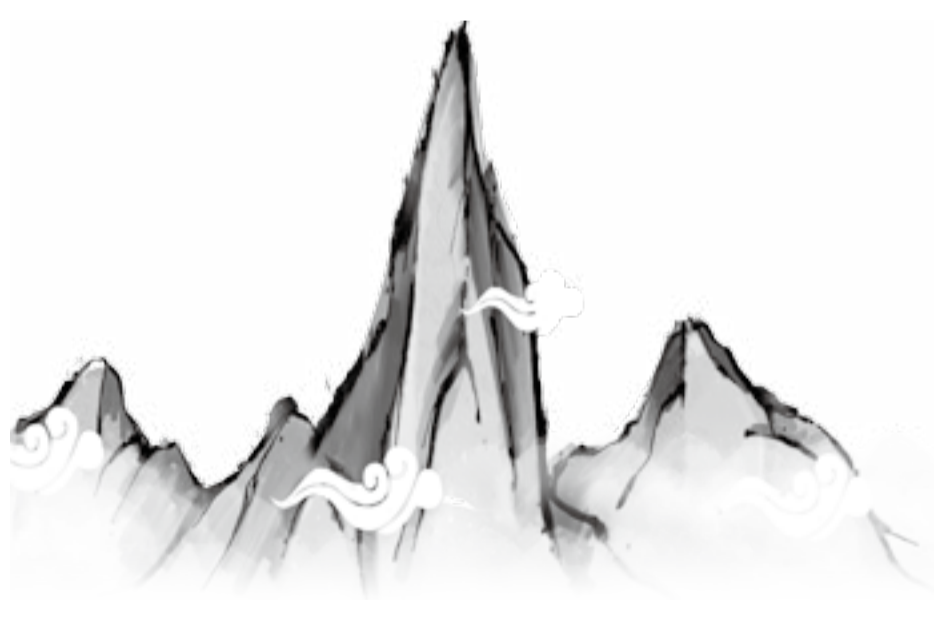
격암유록 新 해설 제68회

極樂歌 극락가

一箇信仰指針 일개신앙지침
元亨利貞救援船 원형이정구원선
烈女忠孝乘滿 열녀충효승만
無邊大海泛流時 무변대해류류시
風浪波濤妖魔發 풍랑파도요미발
信天篤工不懼退 신천독공불구퇴
敗道德雜柔世 패도덕잡유세
風打之竹浪打竹 풍타지죽랑타죽
克己又世忍祭去 극기우세인제거
新天日月更見 신천일월갱견
山水前松松開 산수전송송개
九宮加一亞人 구궁가일불이인
銘心不忘守從 명심불망수종

오직 하나의 신앙지침인 원형이정으로 구원선을 띄우니 열녀, 충신(忠信), 효제(孝節)의 사람들로 가득한데 가없이 넓은 바다로 동동 떠서 흘러갈 때 풍랑과 파도가 거칠게 몰아치고 요망한 마귀가 발동하더라도 구세주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믿으며 독실한 신공(神工)으로 두려워하거나 물러섬이 없으리라. 원형이정은 천도의 네 가지 원리로서 원(元)은 좋은 것의 으뜸이라는 뜻이다. 봄은 네 계절의 으뜸이기 때문에 봄을 '원'이라고 한다. 형(亨)은 아름다운 것이 모여서 형통하다는 뜻이다. 여름에는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여름을 '형'이라고 한다. 리(利)는 옳은 것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대화문(大和門)을 왕래하면 불사영생하느니라



구궁가일 불이인)을 마음에 모셔서 가르침을 잊지 말고 따라야 하리라.

末世聖君容天학 말세성군용천학
我邦人生不顧 이방인생불고
信天者生智覺人 신천자생지각인
地天者死無智覺 지천자사무지각
信天者從木 신천자종목
信地者像拜再生滅死 신지자상배재생멸사
此在中大和門往來者 차재중대화문왕래자
心白眼白白花開 심백안백백화개
心生湧泉數列數列 심생용천부열부열
宮商角徵羽箏琴宮상각징우금성
清雅一曲雲霄高 청아일곡은소고
憂愁思慮閉門心 우수사려폐문심
和氣東風閉門開 화기동풍폐문개
心和琉璃天國界 심화리유천국계
天主侍衛金石屋 천주사위금석옥
東方延壽石崇臺 동방연수석승부

兩人壽福豈此耶 양인수복기질야
天降雨露三豐 천강우로삼풍
眞人居住兩白白 진인거주양백백
三豐何理意 삼풍하리의
無教大豐 무교대풍
不聽轉白之意 불청전백지의
不覺訪道君子心覺 불각방도군자심각

말세성군인 하나님을 닮은 박(朴) 즉 목인(木人)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하늘에서 심승을 구하는 자는 영생하리니 지각이 있는 사람이요 땅에서 심승을 구하는 자는 죽으리니 지각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감(감)나무를 따라 영생을 하고 마귀세상을 믿는 자(땅에서 심승을 구하는 자)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니 멸망을 받아 죽으리라. 이 중(中=지나침도 모자란 점도 없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으면서 대화문(大和門)을 왕래하는 자는 마음이 희고 깨끗하여 눈이 밝아지니 심령이 백합화처럼 희게 피어나고 마음속에서는 생명이 솟아나오느니라. 오음(五音)의 금 거문고 소리를 타고 청아한 노래 한 곡조가 하늘 높이 울려 퍼짐에 온갖 근심걱정으로 단혔던 마음의 문이 은화한 동풍(東風=和風)에 활짝 열리는구나.

중(中)은 고래로부터 유가에서 윤집궐중(允執厥中)이라 하였는데【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서경서경: 우

同)하고 소인(小人)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도 있다. 화(和)란 '화합하여 하나가 되다.'라는 뜻이 있다.

마음이 화평하고 유리같이 투명한 천국 세계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황금과 보옥으로 된 집에서 살게 되니 동방삭의 수명과 석송공의 부유함이 어찌 비할 수가 있겠는가? 삼위일체 구세주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화우로가 삼풍이나라. 진인은 양백 오직 하나로 모아, 그 중정(中正)을 진실로 잡아야 한다】

강중산 선생이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중화경(中和經)의 중(中=道之體도지체)과 화(和=道之用화지용)도 이를 말한 것이다. 중(中)을 얻으면 세상만사를 화(和)로서 용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격암유록(생조지략)에서는 천하만사용화선(天下萬事應和仙)이라 하였던 것이다.

는어에 군자(君子)는 화이부동(和而不) myunghpark23@naver.com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에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